

브라보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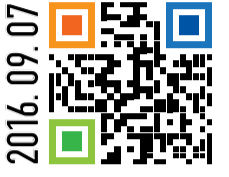
BRAVO ANSAN

NO. 426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9월 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 깨끗한 환경이 1순위
안산시 약취개선 프로젝트 가동

3 안산시가 든든한 이유
복지도 맞춤시대 '행정복지센터' 운영

4 중소기업의 '키다리아저씨' 안산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

8 안산에서 마음충전 어떠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는 가을여행

16 주민참여 이벤트 (시승격 30주년기념)
'30년 청년안산이 좋은 5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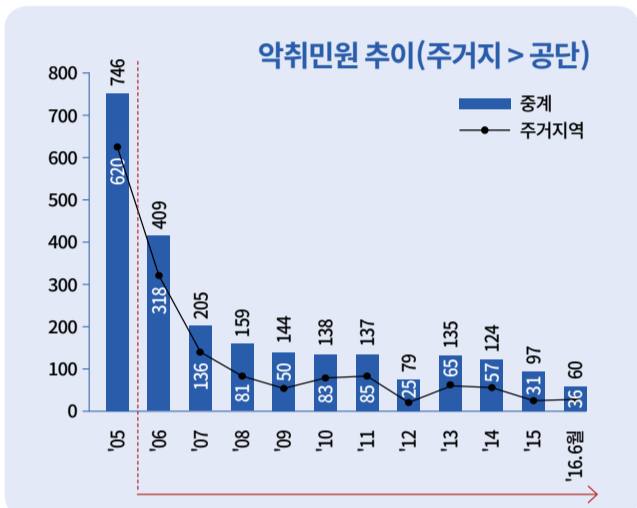
안산시, '악취-끝' 시민과 함께 쾌적한 안산 만든다

스마트폰 웹기반으로 24시간 악취관리 시민체감 악취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악취관리 T/F팀 구성, 악취관리 특별대책 추진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산단)의 악취 제로화를 위해 지난 5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과학적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악취배출원 사전관리·단속,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등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악취 민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시민 환경의식 조사(2016년 3월)를 통해 과거에 비해 악취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49~73%로 시민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발생한 97건의 악취 민원이 0건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안산시 산단환경과(031-481-2896)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안산시의 성장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수질, 악취 물질은 안산 지역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악취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편서풍을 타고 산단을 거쳐 인접지역인 고잔 신도시와 신길동 신시가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백연(흰 연기)과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염색단지·하수처리장 등과 인접해 있는 초지동의 경우 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완충시설이 없어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미세먼지·황사·박무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오염물질 정체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다. 올 상반기 주거지 악취 민원 34건 중 최근(3월 16일~22일)에 제기된 11건의 악취 민원은 박무와 연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악취관리 T/F팀 구성, 민간 및 공무원 108명이 24시간 집중관리

공무원 25, 민간환경감사단 11, 시민 악취모니터링요원 72

지난 5월부터 산단환경과 소속 직원과 민간환경감사단, 악취모니터링요원으로 악취관리특별 T/F팀을 구성해 산단과 주택지역을 24시간 집중 관리한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악취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해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웹 악취관리는 산단에 40명, 주거지역에 32명의 악취관리 모니터링요원이 투입돼 실시간으로 악취발생 상황을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악취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모바일 웹을 통해 악취가 발생된 지역은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추적을 통해 오염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 실명제를 운영해 중점관리사업장 30개소는 일대일로 밀착 특별관리한다.



한명에 산단환경과장

악취방지계획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안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4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악취배출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그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배출 시설별 최적방지시설(Best Available Technology) 설치를 유도하고 업종·시설별 표준화된 운영·관리 등 악취방지계획에 원천적 저감 수단을 적용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난 5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악취발생 폐수처리장 일제정비, 측정차량 상시 운영 및 예·경보제를 운영해 문자로 알려주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악취개선 의지와 투자가 없는 사업장은 조업 정지·퇴출 조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30일 악취배출원 사전 관리를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무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산시 환경시책과 추진방향, 악취방지 기술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악취저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백연저감시설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추진

안산시는 백연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백연제거 파일럿(Pilot) 및 실증화 연구를 통해 최적방지시설(BAT)을 개발해 염색단지에 백연저감시설 5대를 시범 보급한다. 백연에는 폐오일이 포함되어 있어 악취를 발생시킨다.

2020년까지 염색단지 내 100개소에 시화MTV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예산 205억을 투입해 백연 제거 성능이 우수한 '파일럿(Pilot)-플렌트'와 백연·폐오일 회수에 탁월한 '실증-플렌트'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산단환경과 한명에 과장은 "그동안 산단의 대기와 수질은 경기도에서 별도 관리하여 악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대기와 수질관리 업무를 가져왔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악취관리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웹활용 실시간 관리>

이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출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서비스 연결

동주민센터가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새로워진다.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주민센터 기능에 추가로 '맞춤형복지팀' 인력을 전담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마을 안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 위주로 복지혜택을 드렸지만 직접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복지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행정복지센터에는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맞춤형복지팀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자원도 연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제도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안경이 필요했던 조손가정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네 안경점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게 된다. 현재 안산에는 와동, 선부 3동, 율피동, 본오1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5~6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2018년 도까지 모든 동이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바뀐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예전처럼 이웃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만큼 좋은 복지가 없기 때문이다. 동의 복지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중심을 두고 만들어지는 기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지역의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의료인, 자영업자, 주부, 통장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마을의 복지의제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는 협의체 위원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대상자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상반기 안산시 12개 동에서 마을지도자교육을 진행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고, 올 하반기 남은 13개 동 주민리더 교육이 끝나고나면 안산시 전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완료된다.

"복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복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삶이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로 순회교육을 해보니, 주민들이 내 문제에서 시작해 마을의 문제, 공동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협의체에서 복지의제로 선정되면 우리마을의 복지사업이 되어지고 우리마을만의 특화사업도 할 수 있어, 위원님들이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 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면 마을주민과 지역 자원들과의 관계망이 보다 촘촘해져,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복지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숫자로 보는 사회복지 현황



87명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27명

방문간호사



12개동 302명
동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38,489명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 4개소



와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공무원 7명



복지협의체 27명



1일 방문 5가구



1일 상담 30건



선부3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공무원 6명



복지협의체 21명



1일 방문 4가구



1일 상담 25건



율피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공무원 7명



복지협의체 30명



1일 방문 5가구



1일 상담 30건



본오1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공무원 8명



복지협의체 39명



1일 방문 7가구



1일 상담 40건

유용한 정보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 대 상**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기 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금 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중 75%

•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
1350(고용부콜센터)

금연클리닉으로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사랑한다면 이제 금연으로 당신과 가족을 지킬 때입니다.



- 시 간**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4째주 토요일 09:00 ~ 12:00

- 대 상** 안산시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
- 장 소** 상록수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내 용**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측정, 금연 보조제 지급, 금연 1:1 상담서비스 제공

• 상록수보건소 금연클리닉(031-481-5899, 5921)

2016 반딧불이 제안대회

- 기 간** 2016. 9. 1(목) ~ 9. 30(금)
- 주 제** 안산시 시정발전 방안
- 접 수** 안산시 반딧불이 제안세상 홈페이지
<http://idea.iansan.net>

• 안산시 기획법무과(031-481-2802)

같이 즐기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 일 시** 2016. 9. 24(토) 13:30 ~ 17:00
- 장 소** 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
- 내 용**
식전 공연 : 난타공연, 아동댄스공연
공식 행사 : 개회식, 건강기원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
건강체험관운영(27개관) : 임산부·영유아관, 학생관, 성인관
부대 행사 : 건강 골든벨 퀴즈대회

• 상록수보건소(031-481-5925)
단원보건소(031-481-3471)

안산스마트허브의 새로운 도전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제조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히든챔피언 - 안산形 강소기업 육성 현장을 가다 ①

안산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안산形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15개 기업을 선정해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참여기업들은 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 상용화 및 해외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히든챔피언이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지면에 소개한다.

< 전통 날염과 DTP 비교 및 DTP 장비 사진 >



삼우디지털프린트, 마그네틱 박막 코팅기술 활용한 친환경 프린팅 기술 개발

친환경 프린팅 기술(DTP)의 진화

DTP(Digital Textile Printing)는 디지털 날염을 말한다.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쇄 대상물이 종이(종이)가 아니라 원단(섬유)인 것에 차이가 있다. 디지털 날염은 전통날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표현의 한계가 없고, 에너지·폐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차세대 날염방법이다. DTP기계 시장은 불량률 Zero화, 약제절감, 공정단축 등을 통한 생산 비용절감, 환경을 중요시하는 선진국 시장 선점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소기업 + 안산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절묘한 조합으로 신기술 개발

2009년 10월에 설립된 (주)삼우디지털프린트(이하 삼우프린트)는 DTP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3년 12월 장비제작업체인 텍시마인터내셔널로부터 편발수가공용 장비인 마그네틱 박막 코팅장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삼우프린트는 편발수 가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장비운전 능력 및 가공제 응용기술 미흡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컨소시엄(장비제작업체 - 활용업체 - 연구소)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하던 중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DTP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하여 마그네틱 박막 코팅장비를 활용한 DTP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공정의 친환경화·에너지 절감 가능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편발수 가공 응용기술로 매출 1억 달성!

삼우프린트는 2016년 상반기에 편발수 가공을 통해 매출 1억을 달성했다. 푸마, 아디다스에 납품한 편발수 원단은 홈쇼핑에 소개되면서 매출이 상승했다. 스키·스노보드 지도자와 선수에게 Field Test용 시제품이 제작 전달됐으며, 안산시 직장운동부도 2차 Test를 거쳐 실제 착용 결과, 기존 패딩방식(담구어짜는 전통 가공방식)에 비해 바르는(도포) 방식의 가공 제품은 피부에 닿는 부분의 빠른 흡습성으로 인한 쾌적함, 땀 배출과 동시에 외부 환경은 차단해주는 효과가 커 난연(難燃), 방오(防汚)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TP 편면 전처리 가공으로 제품 불량률은 기존 10%대에서 1%대로 감소했다. 특히, DTP 전처리 가공 시 특수 전처리 약제를 개발해 물 사용량을 대폭 줄여 수세용수, 에너지, 폐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됐다.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준 안산시에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향후 완제품까지 도전하며 상상할 것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재운 수석은 “정부출연연구소지만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안산의 중소기업과 R&D를 맺기가 쉽지 않았어요. 강소기업을 매칭해주고, 단기사업이 아닌 4년이라는 투자를 통해 연구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안산시에 박수를 보낸다.”며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삼우프린트 남윤호 대표는 “앞으로 나일론 섬유의 전사 DTP, 면·레이온의 無호료·無요소·無증열 DTP개발, 더 나아가 완제품에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나일론 섬유는 direct 프린팅 방식으로 염색할 수밖에 없어 공정비용이 높은데요, 이를 전사 프린팅방식으로 개발하면 공정비용을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관련 공정의 친환경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DTP 시장을 이끌며 관련업계와 상생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명절 때면 엄마손 꼬옥 잡고 찾던 시장



속초상회 이지현 씨

김 선 명예기자_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 hanmarus@naver.com

올 추석 차례상은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시민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의 막바지에서 다가올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안산시민시장을 찾았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면서 유난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던 상인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묻어나고 있었다.

점점 제 빛깔을 찾아가는 과일들과 제철을 맞아 팔딱거리는 생선들도 진열되고, 설빔도 하나둘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농수산물, 의류, 정육점, 먹거리, 지물포, 잡화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시장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려 사람냄새 물씬 풍기며 정겹게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추석 전 차례상 물가를 미리 알아보는 알뜰족, 상하지 않는 것들은 미리 저렴하게 구입해 놓는 만점주부들도 눈에 띄었다.

시민시장 상인 이지현 씨(속초상회, 60세)는 “올 여름 진짜 덥네요. 폭염 때문에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시장 발길 끊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기서 터 잡고 산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생해도 한 해 두 해 나아지는 것 보면서 힘을 얻고 좋고 싱싱한 물건 가져와 저렴하게 팔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발전하고 다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세요.”라며 웃는다. 이 씨는 수줍은 미소를 간직한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장보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겨움이 있고 느린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야말로 살아있음을 실감케 해주는 곳이 아닐까.

안산 시민시장은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 장이 서고 장이 서지 않는 날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펍펍한 도심 속의 허전함을 정겨운 인심과 향수로 품어주는 시민시장의 따스함을 한번쯤 느껴보길 바란다.

가족과 연인과 대부해솔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9월 24일 대부도에서 걷기 행사 열려

대부해솔길 걷기 행사가 오는 9월 24일 토요일 대부해솔길 제4코스에서 전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걷기행사는 대부해솔길 중 4코스(메추리섬 입구 ~ 대남초등학교)를 걸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걸린다. 걷기 행사에 참가하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안산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http://www.ansantour.kr>)나 대부도관광안내소에서 9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전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걷기가 끝나는 지점인 대남초 부근에 ‘느린 우체통’을 운영한다. 해솔길 걷기의 추억이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엽서를 한 달 혹은 1년 뒤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중간 ‘포토존’을 운영해 해솔길의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냉장고, 세탁기, 선글라스 등 푸짐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출발 전에 받은 배번을 걷기 끝지점에 마련된 통에 넣으면 경품에 응모된다. 또한 대부도의 먹거리, 체험, 숙박 등 다양한 무료 쿠폰과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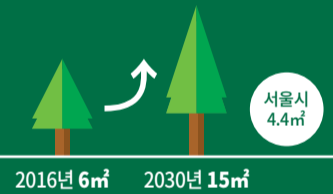
현장 접수자는 배번 교부와 기념품 수령을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에너지바, 음료, 포도, 유정란 등 간단한 간식과 모자 등 기념품을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대부해솔길 대부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다. 총 7개 코스 74km로 대부도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다. 방아머리 선착장을 시작으로 구봉도, 대부남동, 선감도, 탄도항을 거쳐 대송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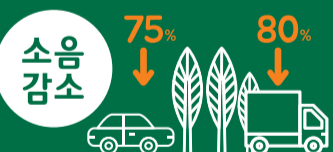


안산시는 숲의도시입니다

안산시 1인당 도시 숲면적



도시숲의 효과?



낮은 담 너머 잘 가꿔진 정원은 못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집주인의 정성스런 손길과 매무새를 가능하며 부러운 눈길로 돌아서는 발걸음 뒤엔 탄식이 남는다. “우리집에도 저런 정원 하나 있었으면...” 도심 속에서도 아기자기한 정원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쌈지공원을 눈여겨보자. 아파트 주변과 길모퉁이에서, 도로가에서 쌈지공원은 내집 앞마당의 작은 정원 같은 휴식공간이 된다.

‘쌈지’란 담배나 부시 등을 담기 위해 종이나 형견, 가죽 따위로 만든 주머니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그 주머니는 허리춤에 달고 다닐 만한 작은 것을 말한다. 쌈지에 들어있는 ‘쌈짓돈’은 많지 않은 푼돈이라는 뜻이다.

‘숲의 도시 안산시’는 마을정원, 마을길, 쌈지화단 등 동네 자투리땅에 도시 숲을 가꾸고 있다.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앞에 ‘인재를 키우는 숲’이라는 콘셉트로 쌈지공원이 조성됐다. 황량하게 방치되어 냄새가 나던 이곳에 자생력이 좋은 야생화 4,000본을 심어 꽃내음 가득한 등하곶길로 변신을 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들 듯 꽃동산 속에 자리한 나비 모양의 벤치 조형물이 화사한 쌈지공원은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관리하고 있다.

성포동 거리에도 꽃향기가 가득하다. 버스정류장·주민센터·상가 앞에는 쌈지화단을, 노적봉에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했다. 홈플러스 옆 노적봉 가는 길, 빌라 담벼락을 따라 길게 조성된 ‘들꽃사랑정원’에서는 상사화, 비비추, 금낭화, 할미꽃, 구절초 등 계절별로 피고 지는 야생화가 산책객을 맞이한다. 오르막에 있는 체력단련장 맞은편 ‘달빛사랑정원’, 수인산업도로 옆 ‘햇살사랑정원’, 약수터 옆 ‘바람결사랑정원’, 경일초 위쪽 ‘숲에사랑정원’ 등 노적봉 야생화단지는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경수중, 자연과사랑, 체육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거리의 화단 꽃박스과 야생화단지의 정원마다 우드버닝(버닝기로 나무를 태워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 넣는 기법)으로 제작한 자연친화적 표지판이 서 있다. 성포동은 노적봉 문화정원 가꾸기 사업에 우드버닝으로 지역공동체일지리를 창출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우드버닝 교육으로 현판, 우승패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노적봉에서는 이름표를 단 라임오렌지나무 40여 그루가 자란다. 성포동은 3년 전부터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라임오렌지나무를 심고 소망문구 명패를 제작해주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한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와 함께 성장하는 제제처럼 온 마을이 키우는 아이는 안산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길모퉁이에서, 우리들의 정원에 피어난 꽃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불러주기를...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線)을 만나다

한·일 누드드로잉 대표작가 대작 초대전
‘이브의 정원’展 열어



(재)안산문화재단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2016 한·일누드드로잉 대표작가 대작 초대전 ‘이브의 정원’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제누드드로잉아트페어 운영위원회와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48명의 한국·일본 작가가 참여한 대작전과 30여 개 단체의 300여 명 누드드로잉 작가가 참여한 아트페어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전시의 부제는 ‘EVE의 정원’이다. 부제에서 짐작되듯이 이번 전시는 누드를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인

체가 표현해 내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일반적인 소규모 드로잉이 아니라 작가적 역량을 드러낸 300호 크기의 대작(大作)까지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드로잉 전시인 점에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전시에는 작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며, 개막식에 진행되는 공개 누드드로잉은 3일과 11일에도 진행되어 단순한 전시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누드드로잉 전시가 될 것이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5, 관람료 무료)

2016 제10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혼, 꿈, 사랑, 다문화와 소통을 주제로 작품 공모

최용신 선생의 계몽 정신을 기리는 상록수영화제가 ‘혼, 꿈, 사랑, 다문화와 소통’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중·고·대학생과 일반인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광복 71주년 6.25 66주년인 올해 호국정신을 ‘혼’에 담고, 교육, 인성, 새 마음, 사회, 환경 등 계몽정신을 ‘꿈’에 담은, 인간중심 ‘사랑’과 다문화, 소통을 이슈로 하는 UCC까지 장르와 주제 구분 없이 출품 가능하다. 이 대회에는 문화부장관상과 상금, 트로피가 수여되는 대상부터 연출상, 기술상, 남자·여자연기상까지 총 32명에게 시상한다. 참가를 원하는 감독은 9월 19일 18시까지 상록수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evff.co.kr>)로 E-mail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품접수는 사무국에 9월 23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지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작품은 접수하지 않는다. 작품 완성본은 심사용 DVD 2매와 1분 이내의 하이라이트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해상도 HD(1920×1080)픽셀 이상 영상을 Mpeg4, Mov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선정된 작품은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문화광장, 다문화 국경 없는 거리, CGV에서 안산시민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이기원 감독은 “혼, 꿈, 사랑 그리고 다문화와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상록수영화제는 분단과 분열을 넘어 통일로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h2>09 Culture Calendar</h2>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p>				<p>1 몸짓페스티벌 〈소방훈련 시나리오〉 일시: 9.1(목) 8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가격: 전석 2만원</p>	<p>2 몸짓페스티벌 〈몸짓콘서트〉 일시: 9.2(금)~3(토) 금8시/토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p>	<p>몸짓콘서트</p>
	<p>5</p>	<p>6</p>	<p>7</p>	<p>소방훈련 시나리오</p>	<p>9</p>	<p>10</p>
<p>12 상설교육전시 품틀 〈공간의 발견〉 일시: 8.27(토)~9.13(화)</p>	<p>13</p>	<p>원성원, Tomorrow-강남마을</p>	<p>17</p>	<p>21 안산시립합창단 제54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합창의 세계〉 일시: 9.22(목) 19:30~21: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22</p>	<p>24</p>
<p>18 백화만발 만화방창 (百花滿發 萬化方暢) 백개의 그림, 만가지 이야기 일시: 7.7(목)~9.18(일)</p> <p>G-Live: Fabien & Taeyoung 일시: 7.7(목)~9.18(일)</p> <p>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릴레이전 〈하석준: 달콤한 에너지〉 일시: 8.23(화)~9.18(일)</p>		<p>하석준, 달콤한 에너지</p>	<p>27</p>	<p>28 경기도미술관 아카이브 전시 일시: 9.29(목)~12.4(일)</p>	<p>29</p>	<p>30 연극 대한민국 마지막 황태자의 정혼녀 민갑완 일시: 9.30(금) 7시 30분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가격: 전석 2만원</p>

안산에서 마음 충전하기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상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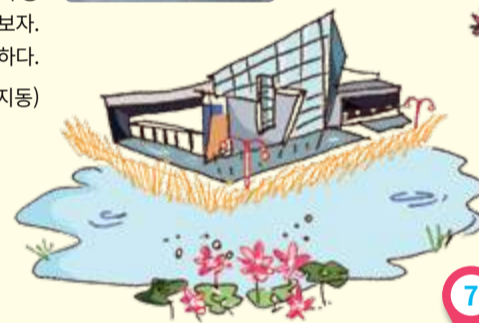
지난 여름 바닷가의 추억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안산에서 호젓한 시간을 내어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자. 쉬엄쉬엄 걸으면서 예쁜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미술관에 들러 그림도 감상하며 느릿느릿하게 하루를 즐겨보자. 곳곳에 있는 페달로 타고 집까지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고 이것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다.

안산여성문화회 글 남정자 / 사진 구순옥 / 일러스트 by 바이블박

6.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10주년 특별전 백화만발 만화방창 - 백 개의 그림과 만 가지 이야기 주제로 경기도 39개 미술관의 소장품을 한 데 모아 소개하는 특별전인데, 장욱진, 김정숙, 오원 장승업, 전혁림,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 김환기 등 100점의 작품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함을 만나보자. 또 야외 조각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위치 단원구 동산로 268(초지동)



7. 와~스타디움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경기장을 갖춘 국내최초 브랜드네임을 도입한 와~스타디움(WA Stadium)은 '와~' 하는 관중의 함성과 웰컴투안산, 월드안산 등의 복합적 의미의 브랜드이름을 자랑하는 종합운동장이다.

위치 단원구 화랑로 260



9. 중앙도서관

안산천과 회정천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다. 나를 다듬어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시간을 내어 책 속에 빠져보면 어떨까. 9월 24일에는 독서의달 기념 공연으로 '그림 읽어주는 베이토벤 마티스' 가족단위 시민 150명을 초대한다. 공연은 오후 5~6시에 책과 음악과 함께 즐기는 예술융합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위치 단원구 안산천남길 14(고잔동)
이용시간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문의 031-481-2702



10. 호수공원

넓은 호수공원은 각종 꽃과 나무, 보여주는 안산 시 또한 사색의 길을





1. 화정 영어마을

글로벌시대의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곳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려는 배움의 열기로 뜨겁다. 영어가 재미있는 놀이로 통하는 수업방식이라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재미와 소통과 배려, 참여, 경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위치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
문의 031-484-6100



2. 화정천

꽃우물이라는 이름처럼 잘 꾸며진 화정천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테마가 있는 정원의 모습이다. 예술의 전당과 와~스타디움을 끼고 흐르는 물줄기는 힘이 있다. 자전거로 달리다보면 분수에서 날리는 물방울들이 뺨에 닿으니 기분 좋은 만남으로 다가온다.



3. 마음 담은 그릇

아이와 함께 순백색 도자기에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 볼까? 아이들은 무지개를 꿈꾸고 엄마 아빠는 숙성된 와인처럼 공방은 소박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다.

위치 단원구 화정천동로 224



4. 엄마 국수

가게를 들어서는 순간 주인의 포근한 미소가 울 엄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푸짐한 국수 한 사발과 따스한 온정을 담은 깔끔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나니 포만감에 나른해진다.

위치 단원구 단원로6 광운상가(1층)



5. 꼬두물 정류장

세월호의 아픈 상처를 가장 많이 겪은 동네인 고잔동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청년 협동조합인 '꼬두물 정류장'이 있다. 목공의 나뭇결을 만지는 대패질과 망치질이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고 스스로를 다듬는 사랑방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쉼터이기도 하다.

위치 단원구 단원로6 광운상가(2층)

8. 돌담길

돌담길을 걸어 본다. 모양도 제각기 다른 것이 하나 돌 모여 돌탑이 되었네. 작은 돌 하나에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을 담아 나도 한번 쌓아 볼까.



12. 안산천

산책코스로 각광받는 안산천변은 각종 새들과 동식물들이 보금자리로 터를 잡고 살아간다. 안산천 징검다리에서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물줄기에서와 달는 물바람이 깊은 산 계곡에서의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안산천을 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13. 한호전 - 커피박물관

29년 전통의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는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으로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각종 경연대회 수상과 취업성공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커피박물관이 있는 카페는 안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위치 단원구 중앙대로 937 1층



11. 행복한 요리 & 카페

고급스런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맛보는 스파게티와 피자는 이태리 정통요리 못지 않다.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향의 커피는 지친 하루를 토닥토닥 위로해준다. 행복한 요리&카페는 커피와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비지원으로 15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치 상록구 조구나리1길 53(이동)



15. 양상동 마을

우리 마음엔 늘 간직하고 싶은 고향이 있다. 안산의 마지막 시골인 양상동이 그렇다. 논에는 누런 벼가 익어가고 밭에는 김장 배추를 심는 손길이 바쁘다.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조금씩 변해가는 양상동을 보며 또 아쉬움이 남는다.



14. 바우벨리 호텔

안산천 길목에 화려한 건물이 개 호텔? 유행처럼 번져가는 애견 숍 중에 이곳은 애견들 천국인 '바우벨리 호텔'이 있다. 강아지들이 좋다고 난리다. 나도 모르게 보듬어 주니 꼬리치며 좋아한다. 이래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나보다.

위치 상록구 안산천서로 223-1(월피동)

다양한 볼거리와 놀 거리가 준비되어 오늘 따라 더 넓게 보인다. 동식물이 서식하고 사계절의 다양한 자연 생태환경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다. 걷는 여류 작가들의 시와 함께 이 가을이 익어 간다.



단합과 파이팅이 중요해요!

올림픽 대표선수를 길러낸 원곡중학교 배구부, 감독·코치 모두 원곡중 배구부 출신



창단 이래 23년간 전국대회에서 30여 차례나 우승하며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낸 배구 명문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원곡중학교이다. 이런 명문 배구부를 맡고 있는 하은희 감독과 오혜숙 코치는 원곡중과 인연이 깊다. 감독과 코치 모두 원곡중 배구부 출신으로 하은희 감독은 원곡중 19회 졸업, 오혜숙 코치는 배구부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원곡중 배구부는 창단 2년 만에 제5회 무등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2위 입상을 했다. 전국 소년 체육대회 1위(1999년, 2004년, 2011년) 실적과 2002년도에는 춘계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배구연맹전 1위 등 4관왕을 거머쥐기도 했으며 23년간 셀 수 없을 만큼

우승의 자리를 지키며 배구의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리우올림픽 배구 대표선수로 출전한 김수지, 김연경, 배유나, 황연주 선수가 모두 원곡중 배구부 출신이다. 예선전에서 활동한 강소휘 선수까지 합하면 5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원곡중 배구부 학생들은 학교 정규 수업을 다 소화하고 4시부터 오후 훈련(3시간 정도)을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2시간 야간 훈련을 하며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배구부 운영은 학교 예산과 프로팀 유소년 지원금으로 거의 충당한다. 지난해에 원곡중 배구부 출신 4명의 선수가 프로팀에 입단하면서 그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

국가대표 경기는 가능한 시간을 맞춰 함께 시청을 한다. 선배들이 직접 뛰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 배구를 책임져야 할 꿈나무들이기에 당장 성적도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올림픽 예선전이 끝나고는 학교 선배이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방문해 야간훈련을 봐주기도 했다. 실질적인 선배의 방문으로 큰 꿈을 가지는 계기도 되고 학생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하은희 감독은 “지금 훈련하는 학생들이 제자이면서

후배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훈련했을 때와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아 더 애착이 간다. 거의 야간 훈련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장 이채현 학생은 “전직 배구선수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부 보다는 운동이 좋았 시작했는데 재밌었어요. 지금은 3학년이 혼자여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함께 운동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배구에서 중요한 건 단합과 파이팅인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올림픽을 보고 원곡중 배구부 입단 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아직 배구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어서 일단 체격 조건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반가운 모습이다. 한국 배구를 책임질 원곡중 배구부 꿈나무들이 끊임없이 파이팅을 외치며 큰 꿈을 그려나가길 바라본다.

☎ 문의 : 원곡중학교(031-599-9701)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미용봉사자 남혜선 씨

행복한 가위손의 미소

미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는 남혜선 씨를 만나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남혜선 씨는 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미용 봉사활동을 떠난다. 이젠 삶의 일부가 되어 미용실을 쉬는 날이면 이 곳 저 곳을 가리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다.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남혜선 씨는 “예전 어머니들이 밥하기 전 쌀 한줌 덜어 모아 놓았다가 필요한 곳에 쓰듯이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 덜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 한다”고 말한다. 또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원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미덕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봉사를 알리고 같이 함으로서 조력자를 만나고 기부 문화가 당연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여유시간 뮐해~, 남는 반찬, 아이들 입던 작은 옷 그냥 버리지 말고 정리해 나눠줘..., 가족이나 이웃에게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지나가는 걸인에게도 꼭 밥 한 그릇 손에 들려 보내셨어요. 세끼 중 한 끼는 감자밥 먹을 시절에 말이죠.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던 제가 지금 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고 제 아이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나선다는 남혜선 씨, 여동생이 사회복지사로 복지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미용실 한 번 가는 것도 아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 번 무료로 해드려 볼까?’라는 생각에서 미용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힘도 들도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돌아오는 자신의 발걸음을 잊을 수가 없기에 또 다시 반복되어지고 중독이 된다고도 했다.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소망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

답니다. 치매를 앓던 할아버지의 손을 닦아주는 딸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이쁘던지, 저와 꼭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두 딸이 바로 저의 열매입니다. 보너스로 남편도 저의 훌륭한 조력자이면서 후원자가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함께 나누면 항상 좋은 일이 생겨요.” 겸손하면서도 당찬 남혜선 씨의 입가에 여유롭고 너그러운 미소가 번졌다.

김 선 명예기자_ itsumo9011@naver.com





책 읽는 즐거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산시, 기업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개관해

지난 8월 18일, 안산스마트허브 내 ‘롯데알미늄’ 카페테리아에 작은도서관이 개관했다. 중앙도서관은 공단지역 근로자들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책 읽는 문화를 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한다.

안산시에는 13개의 공공도서관, 17개의 공립작은도서관, 52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구석구석에 자리해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 향상에 힘쓰고 있으나 정보문화서비스가 주거환경 지역에 치우쳐 있어 공단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시작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롯데알미늄, 캐논코리아, 대성전기)을 선정해 서가, 책상 등 운영물품과 신간도서 구입비로 각 1천만 원씩 지원한다.

첫 번째 기업체 작은도서관으로 롯데알미늄 제1공장 사무동 2층의 카페테리아(58.6㎡)에 서가와 도서 600여 권을 지원해 북카페 작은도서관이 조성됐다.

롯데알미늄 김영순 대표는 “본사에서도 꾸준히 도서를 확충하는 등 직원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책 읽는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원들에게 복지 차원의 도서를 지원하며 기업의 독서문화에 앞장서오던 ‘대성전기’는 도서관 등록을 위한 기준(33㎡ 이상)에 맞춰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공간을 확보했으며, PC 등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9월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서관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가장 믿음직한 견인차이자 공동체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 장소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어 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이 업무 중 잠시 짬을 내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책 향기 드높은 문화도시 안산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34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9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책으로 떠나는 세계문화기행



세계의 문화

저자 레이나 올리비에 / 출판사 사파리

세계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과 옷차림, 사는 곳, 교통 수단, 놀이, 식사 예절, 인사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곳곳에 담았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손을 흔들며 다양한 언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지도와 함께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친근하게 느껴지고 각 나라의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80일간의 세계문화기행

저자 이희수 / 출판사 청아

「80일간의 세계문화기행」은 세계 속으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문화기행을 담은 책이다. 다른 문화를 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그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넓은 세상을 배워가는 딸이 함께 엮어낸 여행기를 담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여행을 꿈꾸는 성인까지 두루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계 최고 여행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저자 김후영 / 출판사 상상

「세계 최고 여행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흩어진 세계문화유산 58곳을 소개한 책으로 페루의 마추픽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등 눈에 익은 문화유산과 함께, 다소 낯설지만 꼭 알아둬야 할 만한 숨은 문화유산들을 한데 다루었다.

자료제공_중앙도서관

깊은 바다 속에서 간신히 밝혀낸 진실 하나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 내린 결론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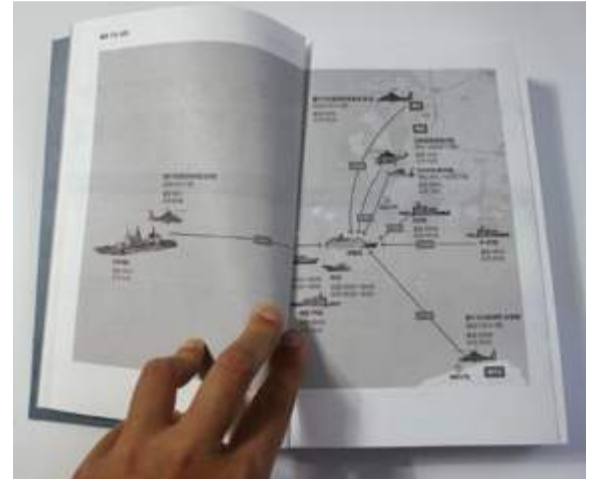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바다 깊은 곳에 가닿아 밝혀낸 진실 한 조각이다. 베테랑 기자와 변호사, 작가, 시민활동가 등 8명의 세월호 기록팀이 15만쪽, 3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10개월 동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휴대전화에 남긴 단원고 학생들의 음성과 문자, 생존자들의 증언, VTS녹취록과 재판기록 등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정리한 사실은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한다.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 같은 시간과 장소 별로 정리한 사실이 가 닿은 곳은 결국 ‘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이 책은 ‘왜 구하지 못했나’, ‘왜 침몰했나’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있던 엄청난 기록의 바다에서 찾고자 했다. 녹취록을 분석해 누락된 부분을 밝히고, 해경의 모든 교신 기록을 검토하고 음성파일을 들으며 실제 상황과 대조해 시간 오차를 바로잡았다. 탈출하려는 승객들의 의지를 꺾게 만들었던 세월호의

12차례 선내 대기방송도 순서대로 복원했다. 이 작업의 시작은 세월호 안에서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15분짜리 동영상을 발견한 박종대 씨가 세월호에 대한 기록을 끈질기게 모으면서부터였다. 재판을 따라 다니며 기록을 챙기고 전국을 돌며 목격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모으던 아버지는 매일 새벽 수 만장의 기록과 홀로 씨름을 하던 중 재판법인 ‘진실의 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꾸려져 진상규명을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자료가 만들어졌다. 여전히 세월호 침몰 원인인 급격한 변침의 이유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인양을 앞두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고, 특조위 연장을 위해 유가족들은 다시 곡기를 끊었다. 아무리 고통스런 진실이라 해도 그것을 제대로 직면했을 때에만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해볼 수 있다. “바보 같은 진실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픈 진실은

슬프게 말하라.” 이 책이 인용한 르몽드 창간자의 말이 그 어때보다 더 절실히 들린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저녁이 있는 삶’ 위해 근로자와 소통

안산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와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가져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 근로자, 근로단체 관계자와의 대화로 26번째 순서를 맞았다. 지난 8월 24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해 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전했다.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에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자녀교육 등 복지를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근로자 중심의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 선발에 근로단체의 추천이나 산업체근로자 자녀의 대상지정 등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금문제나 일하는 시간, 현장의 안전문제 등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열악함을 알리던 한 노동자는 “일 끝나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기가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청년 근로자,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한 학교 계약직 영어전문 강사, 10년이 넘도록 비정규직으로 시 산하단체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 등 많은 질문과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반월·시화산단에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한다

정왕역·오이도역·안산역·상록수역 연계, 1일 48회 운행



9월부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출퇴근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경기도, 안산·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연간 6억의 예산을 투입, 45인승 전세버스 10대를 운행해 반월·시화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는다.

산단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인원이 몰리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 통근버스 운행에 따라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는 안산역에서 반월산단까지 3대, 상록수역과 시화MTV를 운행

하는 통근버스 2대를 운영한다. 5개 노선별로 출근시간 2회, 퇴근시간 2~3회로 운행하는 통근버스 이용 시 출퇴근 시간을 20~30분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반월산단 내 통근버스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근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운행하며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향후 운행 여건에 따라 이용요금과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070-8895-7555)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624)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n@hanmail.net

안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서 하반기 원구성 완료

29일 제4차 본회의 및 제1차 상임위 열어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임

안산시의회가 29일 제233회 제4차 본회의 및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 선거를 실시해 부의장에 정승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동규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유화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홍순목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김동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상임위를 개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정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송바우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에 나정숙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에 이상숙 의원을 상임위원 간 호선으로 선임했다. 이처럼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안산시의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앞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하게 되며, 4개 상임위원회도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일반안건 11건과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안산시의회가 29일 제233회 제4차 본회의 및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후반기 원구성 프로필



의 장
이민근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택

기획행정위원장
유 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 24일 ‘함께 사는 도시 조성’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가 도시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공유 플랫폼을 통한 함께 사는 도시 조성’을 주제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자산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던 만큼 강사로 나선 협치서울추진단의 전은호 지원관이 관련 내용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따르면 시민자산화는 시민이 주체가 돼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 소유·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산과 사유재산 결합한 시민자산화재단을 구성,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목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서울시와 안동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은호 지원관은 시민자산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선제적으로 쓰일 수 있다며 협동조합과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새로운 공유 모델을 안착시킨 캐나다와 영국의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시민자산화재단 구성에 있어 공익신택의 개념과 모금 목표치, 시각 차가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등을 질의하며 안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는 데에 주력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희망발전소’가 24일 저녁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 지역 병원 방문해 환자 위문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지난 19일 지역의 한 병원을 방문해 최근 이 병원의 지원으로 수술을 마친 환자를 위문하고 취약계층 의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A병원 등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수술비 문제로 지병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봉사단체 ‘(사)나눔과 기쁨’의 주선으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B씨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지만, 이번 수술이 요추 협착을 급속으로 교정하는 큰 수술이어서 수술비용이 정부 지원 범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을 방문한 이민근 의장은 수술을 받기까지 그간의 사정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 상황 등을 (사)나눔과 기쁨 및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뒤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살펴며 쾌유를 빌었다. 이민근 의장은 “제도권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맡아 지원해 줬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자분도 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b 我 Dream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제1회 잡아드림(Job 我 Dream) 자유학기제·진로 축제'에서 답을 찾는 아이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 시민 시장

뜨겁던 여름도 가을에 자리를 물려주고 추석이 코앞이다.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전통시장이 으뜸.
장날이자 토요일인 9월 10일, 전통명절을 즐기러 안산시민시장으로 나가보자.

사진 김진영 명예기자 _ econojini@naver.com



대송단지를 시민의 품으로 / 관광명소화

대부도는 안산시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지역자원이다. ‘큰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대부도는 1994년 12월 웅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서해안의 관광명소이다.

대부도의 일원인 시화지구(대송단지)는 서해 경기만 일대의 바다를 막고 갯벌을 매립하는 대단위 간척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였다. 이로 인해 조성된 인공호수인 시화호와 그 결과 형성된 대규모 간척지는 북측으로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남측으로 도시용지인 송산그린시티와 농업용지인 대송단지가 계획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산업집중 억제정책을 위한 수도권지역의 국토확장 사업으로서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코자 추진한 사업이었다. 담수호 조성으로 우량농지 확보, 농업단지 조성국토확장의 효과를 위하여 추진 중 심각한 시화호 오염으로 기존 시화지구 개발계획의 근본적 수정과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관리대책 등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악화와 사회적 이슈로 진통을 겪었던 시절을 보내오면서 수많은 개발계획과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제시되었던 곳이 바로 ‘대송단지’이다. 또한,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시화지구에 대해 ‘근교농업·첨단수출원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기본구상을 고시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송단지에 대한 전체공정을 약 50% 완료한 상태이며, 1998년 시작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로서는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시행기간을 변경한 상태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인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산시가 경기도로부터 시범영농단지 조성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풍차, 휴게시설,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감사원이 전임 지자체장들의 예산 낭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감사 과정에서 사용 승인 목적에 어긋나는 시설이 설치됐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역의 인근 상인들과 대부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까지도 갈대만 무성할 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대송단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

촌공사의 사업 준공할 때까지 기다리기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등 국토정책 트렌드에 어긋나는 시대적 착오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대부도는 대부해솔길, 시화호 철새 군락지 등 천혜의 숲과 바다 자연자원을 가지는 수도권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그 중 대송단지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부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송단지 일부 지역에 대해 부분준공을 통한 ‘도시농업공원’ 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 농업위주의 생산 활동에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관광 등 융복합 6차산업 시스템으로 미래농정여건도 변화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 트렌드에 부응하는 대송단지의 기본구상 변경과 준공(부분준공)으로 안산시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생태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희망한다.



박영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안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2016.9.10.(토) 14:00~20:00
안산문화광장

안산, 수원, 안양, 용인, 화성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 여는 마당**
기념식(14:30)
난타공연
사회적경제 피아노
- 참여 마당**
사회적경제 홍보부스
사회적경제 체험부스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카페
재활용형원 모토콘
- 여유림 마당**
안산문화재단 '별한 투 시민예술시장'
사회적경제 문화예술공연
사회적경제 권유추진 이벤트

낮에도 전조등 켜기 꼭 동참해주세요!!

주간 전조등 켜기의 효과
교통사고 19% 감소 (국토교통부, '14년 6월 발표)

전조등을 켤때, 시속에 상관없이 **최소 10m 이상** 위험 먼저 인식,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차량 인식을 **2배 이상** 높여주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됨 <교통안전공단, '14년 조사결과>

구분	전조등 켤때	전조등 꺼질때	분석
시속 40KM	65m	55m	10m 먼저 인식
시속 50KM	70m	45m	25m 먼저 인식
시속 60KM	70m	60m	10m 먼저 인식

평균 60km 속도로 50km를 주행시 연료소모량은, **약 0.1L (약130원) 소모 배터리 영향 없음**
<교통안전공단, '14년 조사결과>

배터리 이상 및 연료소모량이 많지 않은지?

EU(유럽연합) 법제화 및 교통사고 감소

구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법제화	1972년	1977년	1985년	1989년
효과	평균 교통사고 11 ~ 20% 감소			



오늘 출근길 버스 타러 가는 동안 길가에서 개똥을 4번이나 봤습니다.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입니다.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구역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하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마다 도로변에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 상시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단기계약직 채용과 여러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공영차고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무인자동카메라CCTV 확대설치 및 대형차량 차고지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일과 후에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으로 2가지 건의합니다. 운동 중에 모기에 자주 물려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꾸준한 방역이 필요하고, 호수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가는 교량부근은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구간에서 자전거와 도보의 구분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는 구간입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로를 신설해주세요.



호수공원은 모기퇴치기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모기퇴치기 자동분사기 4대를 공원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방역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시선 유도봉 설치와 자전거 전용 도로 바닥 표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 공원과, 상록수보건소



한대역 앞 광장 버스 노선 시급합니다. 명색이 광장에 상권도 조성돼 있는 공간에 버스 노선은 1시간 간격에 하나 올까 말까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 대역 앞 버스노선은 현재 4-1번(평일배차 15~20분)과 76번(평일배차 80~100분)이 운행 중으로 필요한 버스노선을 알려주시면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 대중교통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 시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안산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소식지 명예기자에 도전하세요!

- 모집인원 4명
- 접수기간 2016. 8. 24 ~ 9. 13(21일간)
- 응모자격 성별·나이·직업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기사 작성에 소질이 있으며 활동능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 전공과 경력에 따른 우대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bravo@iansan.net) 또는 공보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안산의 자랑거리' 원고 1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을 수 있음



'상록 트레킹' 사진 공모전

- 공모주제 '상록 트레킹' 멋과 추억
- 응모자격 누구나(응모자격 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6. 9. 1(목) ~ 10. 31(월)(도착분)
- 참가방법 상록구청 홈페이지(<http://sangnok-gu.iansan.net>)에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접수 담당자 이메일(vaha@korea.kr) 우편접수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5층 행정지원과(상록구청, 사동)
- 제출사항 사진(1인 2점 이내)과 사진에 대한 짧은 글 기재한 신청서
- 결과발표 2016년 11월 말 예정(상록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문 의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031-481-5101~3)

인생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설계프로그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주 제 '은퇴후 35만 시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기 간 2016. 10. 10 ~ 11. 28, 매주 월요일 19:00 ~ 21:00(8강)
- 장 소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갤러리
- 특 전 80% 이상 교육 수료생은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1:1맞춤 컨설팅 1회 제공
- 접 수 9. 19(월),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http://wm.iansan.net>)
- 문 의 여성비전센터(031-481-2761)

예로부터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널리 활용되었던 우리 약초! "허준 약초교실"에서 약초의 효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세요~

- 주 제 우리약초 바로알기 '허준 약초교실'
- 기 간 2016. 9. 28 ~ 11. 18, 매주 수/금요일 10:00 ~ 13:00(16강)
- 장 소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갤러리
- 내 용 14회 이론 강의와 2회 현장 체험학습(인제/홍천)
- 접 수 9. 19(월),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http://wm.iansan.net>)
- 문 의 여성비전센터(031-481-2761)

시승격 30주년 기념 시정소식지 구독자 이벤트

'청년 안산이 좋은 5가지 이유'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16. 9. 7 ~ 9. 30
- 응모방법 이메일(bravo@iansan.net) 또는 우편접수(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실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 당첨발표 시정소식지 428호(10. 12발행)
- 당첨선물 메가박스 콤팩트키지(*응모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기재 필수)

*이벤트 응모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는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우편, 이메일로 응모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